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임춘배 담임목사
	3부 오후 1:00 (청년예배)	김진만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8장 (통일찬송가 9장)
교 독 문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찬 양 과 경 배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
기 도	윤 호 중 장로
특 송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김혜선, 류은영, 백미경, 심지숙
말 씬 봉 독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설 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9:1-20)

교회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로 나누어 대면예배로 드리고 영상을 제공합니다.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를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금요일기도회 영상 제공합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3차)
(범위 : 예레미야 8 ~ 52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 **장 로 은 퇴**

조윤익 장로 (생년월일 : 1957년 5월 22일)
5. **교 회 이 전 예 배**

다음 주일(29일) 오후 3시.
원종선 목사가 시무하는 가슴뛰는 교회 이전 예배 드립니다.
6. **떡 제 공**

구영서, 방성자(예진)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주셨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p>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복음 앞에 전심을 다해 헌신하는 한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p>
----------------------	---

찬송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통511)

신앙고백 : 사도신경

본문 : 디모데전서 6장 7~10절

말씀 :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물욕이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줍니다. 도시에 사는 언니와 시골에 사는 여동생이 나누는 대화로 시작됩니다. 서로 자기가 사는 곳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자매의 대화에 동생의 남편 파흠이 끼어듭니다. "농부들은 농사지를 땅만 있다면 악마나 다른 무엇이라도 두려울 게 없다"며 부인의 주장을 거들지요. 이를 들던 악마는 화가 났고 파흠을 타락시키려고 계락을 꾸밈니다. 그를 땅으로 미혹하기로 하죠. 파흠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작은 땅을 샀는데 1년 만에 돈을 다 갚고 땅 주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웃 농부들과 사소한 갈등이 생기고 더 넓은 땅을 분양받아 이사 갑니다. 땅은 세 배로 늘어나고 살림살이는 열 배나 나아졌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그곳도 좁게 느껴졌지요. 파흠은 일 년이 걸려도 돌아볼 수 없는 넓은 땅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바르키르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찾아가보니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 동안 걷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파흠은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걷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넓은 땅을 얻을 생각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결국, 목적지로 돌아와 심장마비로 죽고 맙니다. 원주민들은 파흠을 묻었는데 고작 한 평도 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떠오르게 합니다(눅12:16~20).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는데, 바로 디모데 서입니다. 젊은 나이에 교회를 맡아 목양했던 디모데에게 영적인 피와 살이 될 만한 가르침을 편지로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죽한 줄로 알 것이라"(8절)며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줄 가르침을 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10절).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돈의 힘에 길들여져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살 때도 있지요. 오늘날 우리는 2000여 년 전 디모데가 겪었을 돈에 대한 유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필요를 넘어 과도한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어리석은 부자나 톨스토이가 소개한 이야기 주인공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 목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살전2:1-9)

서 론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을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 론

1. 복음에 합당한 삶

- (1) 우리는 복음을 위탁 받았다(4절).
- (2) 고난과 능욕을 당하여도 복음을 전한다(2절).
- (3)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3절), 아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말아야 한다(5절)
- (4) 유순한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여야 한다(7절)

2. 교훈

- (1)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2) 복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 (3)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결 론

위탁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조계승 장로

매일 Q.T.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날짜 : 5월 23일
찬양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본문	고린도전서 10:23~11:1		
말씀요약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니, 누구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어떤 음식이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우상의 제물임을 알게 되면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목상질문 1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10:23~27 불신자가 차린 음식을 먹을 때 그 출처를 묻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을 위해, 내 양심을 위해 주의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10:28~11:11 바울은 어떤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임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나 중심적 습관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행동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얻은 것이기에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유익'과 '덕'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유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합당한 것을, '덕'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교회에 연계됨을 기억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게 허락된 자유를 과용해 다른 사람의 양심에 판단하는 마음이 들게 한 일을 용서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되, 연약한 이들을 고려하는 신중함도 잊지 않게 하소서. 복음에 합한 이타적 삶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주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모임”	
찬양과 기도	여기에 모인 우리 (새620), 다 표현 못 해도 나 표현하리라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매일 그 감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한 사람씩 예배당 앞으로 나가 큼직한 성찬 빵을 조금 뜯어서 잔에 담긴 포도즙을 찍어 먹는 방식으로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생전 처음 성찬식에 참여한 그는 다른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성찬에 참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빵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의 몸이 특별히 더 많이 찢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찬 빵을 크게 찢어서 포도즙을 듬뿍 묻혀 입에 넣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입 안 가득한 빵을 씹는 동안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성찬식의 은혜를 잊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했고, 훗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단지 한 문장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매일 그리스도인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은혜의 진리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매일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복음의 음성입니다.		
말씀 나누기	고린도전서 11:17~26		
목상포인트	공동 식사와 관련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단순히 배려와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거룩함과 사랑을 놓치고 있는 영적 현주소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욕심을 채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혹독하게 질타하며 철저한 성찰을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모임은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성찬식 역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공동체적 예전으로 거행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17~21절)		
적용하기	내가 속한 공동체는 모임을 진행할 때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나요? 이번 주에 나는 누구를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기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며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다양한 은사의 근원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날짜 : 5월 27일
찬양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본문	고린도전서 12:1~11		
말씀요약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교훈하며, 누구든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은 교회의 유익을 위합니다.		
목상질문 1	은사의 근원 12:1~6 성도가 성령을 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목상질문 2	은사의 종류 12:7~11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며, 나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한절목상	고린도전서 12장 7절 성도에게 '유익'이라는 단어는 자신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도 나의 유익으로 여기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러한 성도들 향한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능력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은사로 제 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체들이 서로의 인사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나눠 주신 다양한 은사를 귀하게 여기며 겸손히 사용해 모든 지체가 유익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질서와 조화에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	날짜 : 5월 24일
찬양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본문	고린도전서 11:2~16		
말씀요약	바울은 예배 중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머리를 가리지 않지만, 여자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녀는 동등합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되며, 그리는 것을 대신합니다.		
목상질문 1	머리에 쓰는 문제 11:2~6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목상질문 2	스스로 판단하라 11:7~16 바울이 이해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일반적 남녀 본성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룰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성도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은 채 예언하는 것을 제지했습니다. 마치 성경이 남자와 평등한 여자의 권리를 소홀히 다루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이해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영적 주장의 난립은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고, 바울은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입니다. 영적 자유를 주장하며 논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 교회는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 지으시고 둘이 하나 되는 신비를 이루게 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심어 주신 남녀의 본성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남녀 모두가 하나님에게 뉘음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게 하소서.		

매일 Q.T.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르게 실현하는 성만찬	날짜 : 5월 25일
찬양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본문	고린도전서 11:17~26		
말씀요약	바울은 '주의 만찬'을 먹을 때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책망합니다.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며, 성도는 이를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 되지 못한 성도들 11:17~22 주의 만찬에 임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공동체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먼저 돌아볼 지체는 누구인가요?		
묵상질문 2	성찬의 기원 11:23~26 성찬의 기원은 무엇이며, 그에 담긴 의미는 어떠한가요? 내가 깨달은 성찬의 의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누구에게 전할까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모두가 하나 되어 교회의 기초를 굳건히 할 시기에 발생하는 성도들 간의 '분쟁'은 위기 신호입니다. 분쟁은 사랑이 부족해서 발생합니다. 분쟁은 성도들의 모임을 휘방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예배에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은혜가 따릅니다. (엡4:3~4).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말세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 낼 수 있습니다.(히10:25)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의례적인 행사를 치르듯 성찬에 참여한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구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소서. 성도들의 식사 자리와 모임이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현장이 되게 하소서,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소서.		

매일 Q.T.		은혜가 되는 성찬, 죄가 되는 성찬	날짜 : 5월 26일
찬양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본문	고린도전서 11:27~34		
말씀요약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자신을 실행하고 난 후에 떡과 잔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먹으려고 모임 때는 서로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묵상질문 1	자신을 살피라 11:27~29 고린도 성도들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기 전 무엇을 살펴야 했나요? 성찬에 참여할 때 다른 지체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왜 중요한가요?		
묵상질문 2	서로 기다리라 11:30~34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이 되도록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살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키마조'는 '시험하고 점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성찬은 나의 허물을 돌아보는 겸손의 성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높여 찬양하는 성례입니다. 성찬으로 인해 성도는 자신에게는 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사랑을 더욱 베푸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알게 모르게 사회적/경제적 지위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다르게 대했던 태도를 회개합니다. 몸과 피를 다 내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성찬을 나누는 지체들을 배려하고 섬기게 하소서. 기다림과 인내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